

# 뜻뜻한 17세... 프랑스오픈 '코트의 반란'



### 미라 안드레예바, 세계 2위 사발렌카 꺾고 4강에 올라 또 다른 이번의 주인공 파올리니와 결승행 티켓 격돌

올해 17세에 불과한 미라 안드레예바(러시아·38위)가 그랜드 슬램대회인 프랑스오픈(총상금 5350만 유로·약 794억 원) 역사상 27년 만에 최연소 4강 진출자가 됐다. 세계 테니스의 레전드인 '알프스 소녀' 마르티나 힝기스(스위스·은퇴)까지 소환시켰다. 안드레예바는 1997년 힝기스에 이어 프랑스오픈 4강에 오른 가장 어린 선수가 됐다. 당시 힝기스는 당시 16세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더구나 안드레예바에게 고배를 마신 선수는 올해 호주오픈을 제패한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2위)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생애 첫 그랜드슬램 4강에 오른 2007년생 안드레예바는 7일 자스민 파올리니(이탈리아·15위)와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이전까지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 2023년 윈블

미라 안드레예바가 6일(한국시간) 열린 그랜드슬램 대회인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4강에서 사발렌카와의 8강전에서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던과 올해 호주오픈에서 기록한 16강이었던 안드레예바는 이번에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해가고 있다.

또한 1회전에서 본인의 두 살위 친언니인 에리카 안드레예바(100위)를 탈락시켰던 사발렌카에 승리하며 간접적인 설욕에도 성공했다. 안드레예바는 상대전적 2전 패 이후 사발렌카에게 거둔 첫 승리였다.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메이저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 사발렌카는 복통 증세를 보이며 경기 도중 여러 차례 트레이너와 의료진 도움을 받는 등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듯한 모습이였다.

안드레예바는 6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퐁라카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8강에서 사발렌카를 2-1(6-7(5)-7) 6-4(6-4)로 제압했다. 경기 시간은 2시간 29분이 소요됐다.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 끝에 아깝게 내준 안드레예바는 23세트를 내리 따내며 역전승에 성공했다. 2022년 US오픈부터 그랜드슬램 여섯 대회 연속 4강 이상 올랐던 사발렌카는 그 기록도 끝내고 말았다.

안드레예바는 그랜드슬램 출전 6번 만에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대회 이전 안드레예바의 그랜드슬램 최고 성적은 2023년 윈블던, 2024년 호주오픈에서의 4회전(16강)이었다. 현재 랭킹은 23위까지 올라섰고, 준결승에서 승리한다면 16위까지, 우승한다면 14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안드레예바다.

안드레예바는 이날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2세트에서는 게임스코어 3-2에서 안드레예바가 사발렌카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하는데 성공했으나 사발렌카도 곧바로 안드레예바의 서브 게임을 빼앗아오면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은 안드레예바는 5-4에서 사발렌카의 서브 게임을 다시 한 번 브레이크하면서 세트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3세트도 혈투였다. 게임스코어 2-2에서 사발렌카가 먼저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안드레예바도 곧바로 사발렌카의 서브 게임을 가져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2세트처럼 5-4에서 사발렌카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면서 대혈투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대회 최대 이번을 일으킨 안드레예바의 4강전 상대도 공고롭게도 또 다른 이번의 주인공인 자스민 파올리니다. 1996년생 파올리니는 2022년 윈블던 우승자인 엘레나 리바키나(4위·카자흐스탄)를 2시간 3분 접전 끝에 2-1(6-2 4-6 6-4)로 꺾고 4강에 올랐다.

파올리니는 지난해까지 단식 본선 2회전 이 자신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었으나 올해 호주오픈에서 처음 16강에 올랐고 이번에 기록을 4강까지 높였다. 2022년까지 50위권 밖에 머무는 평범한 선수였던 파올리니는 지난해부터 승률을 높여더니 올해 2월부터 20위권에 꾸준히 올라 있다. 163cm 단신이지만 빠른 발놀림과 끈질긴 수비가 장점이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 이승용 SSG 감독 "추신수 7일 복귀... 지명타자로 활용"

올 시즌이 끝나고 은퇴하는 2024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최고령 선수인 추신수(41·사진)가 7일 1군으로 돌아온다.

이승용 SSG 감독은 6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추신수가 7일 투수 서진용과 함께 1군으로 올라온다"며 "추신수는 몸 상태만 괜찮으면 타격 감각은 금방

끌어올릴 선수"라고 말했다. 추신수는 지난달 7일 어깨 통증 탓에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정밀검진에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손상 소견이 나와 약 한 달 일정으로 재활했다. 회복에 전념하던 추신수는 지난주 프리베어링을 시작했고, 4~6일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점검

했다. 이 감독은 당분간 외야수 추신수를 지명타자로만 활용할 생각이다.

이 감독은 "추신수가 타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명타자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명타자 추신수를 활용하고자 이 감독은 강타자 한유섭의 외야 수비 출전 시간을 늘릴 생각이다. 최근 이 감독은 산책,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한유섭과 많은

대화를 했다.

이 감독은 "한유섭은 고민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다. 개인 성적뿐 아니라 팀에 관한 고민도 많이 한다"며 "유섭이에게 '경기가 끝나면 야구 생각을 잊어보라. 부담감이 내려놓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5일에는 긴 대화를 한 뒤 한유섭을 선발 라인업에서 빼고 대타로 쓰기도

### 어깨 회전근개 손상 재활에 한달간 몰두

했다. 한유섭은 5일 삼성전에 교체 출전해 희생 플라이와 적시타를 치며 1타수 1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다.

이 감독은 "대화 덕인지 한유섭의 타격 감각이 올라온 것 같다"고 흐뭇하게 웃었다. 한유섭과 대화에서 이 감독은 외야수로 뛸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예고도 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